

국내 간호사 직무만족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윤상후*, 김영아**

*대구대학교 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Korean Nurses

Sang-hoo Yoon*, Young A Kim**

*Div. of Mathematics and Big data science, Daegu University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 직무만족과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관련변인들을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작성은 PRISMA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을 따랐다. 질적 합성을 하는데 검토한 논문은 총 144편으로, 가장 많이 측정된 주요 관련변수는 직무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순이었다. 양적 합성을 하는데 검토한 논문은 총 53편으로 직무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메타분석 결과, 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한 평균효과크기는 소진 -0.539, 이직의도 -0.484, 직무 스트레스 -0.395로 모두 중간효과크기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 관련 특성을 파악하게 하여 간호사들의 유지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의 인력관리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 상승 및 최선의 의학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간호사는 보건의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질적 수준과 배치 수준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할을 차지한다[1,2].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은 병원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간호사의 이직과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환자의 위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3-5].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만족 관련 국내 개별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관련 연구와 보건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추후연구 및 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호사 직무만족, 간호사 업무만족을 키워드 검색한 결과 456편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Google Scholar와 참고문헌의 검토를 통해 8편의 연구를 추가하였다. 중복된 문헌

180편을 제거하고, 284편에 대해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48편(관련없는 연구 24편, 질적연구 1편, 대상자가 간호사가 아닌 연구 14편, 대상자가 국내 간호사가 아닌 연구 1편, 원문이 접근불가능한 연구 8편)을 제거하였다. 236편의 연구에 대해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전문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92편(상관관계를 밝히지 않은 연구 65편, 학술대회 발표자료 16편, 적절한 통계치가 없는 연구 11편)를 배제하였다. 최종 선정된 144편의 논문에서 다른 관련변수를 추출하여 결과의 양적 합성을 위해 가장 많이 측정된 3개의 관련변수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를 다룬 53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논문은 총 144편으로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이 2편(1.4%), 1990년대에 출판된 논문이 11편(7.6%), 2000년대에 출판된 논문이 57편(39.6%), 2010년 이후에 출판된 논문이 74편(51.4%)으로 가장 많았다. 메타분석에 사용한 간호사 직무만족과 관련된 주요 관련변인 3개를 다룬 논문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편이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는 33편이지만, 메타분석에서의 연구의 수는 37개이다. 4편의 연구가 각각 두 가지 간호사 그룹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스트레스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통합효과크기는 -0.395 이나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했다($I^2=85\%$; $\tau^2=0.033$, $p<.001$).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는 15편이고, 메타분석에서의 연구의 수는 16개이다. Oh (2016)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각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통합효과크기는 -0.539 로 중간크기의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였으나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했다($I^2=90\%$; $\tau^2=0.059$, $p<.001$).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는 11편이다. 통합효과크기는 -0.484 로 중간크기의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였으나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했다($I^2=64\%$; $\tau^2=0.010$, $p=.002$)

4. 논의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간호사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총 31개였고, Slavitts 등[6]이 개발한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가 54편(37.5%)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연구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총 7편이 확인되었으나 7편 모두 1회 사용에 그쳐 추후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직무만족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간호사 직무만족 관련변인인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는 모두 중간 효과크기로 확인된다[7]. 세 가지 관련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질성이 발견되었는데, 개별 연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환자 관리 단위, 지리적인 위치, 근무 환경 유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특성이 개별 연구마다 다를 수 있고,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출판연도가 1994년부터 2018년까지로 연구 환경과 분석의 정교함의 차이로 인해 연구간 차이가 예상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관련변수들의 안전계수는 최하 2,576으로 효과크기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소진 및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간호사들의 유지율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와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관, 정부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Jeong, E. Y.,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nurses in South Kore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pp. 599-612, 2013.
- [2] 정경순, 정면숙,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문헌 분석", *근관결건강학회지*, 제 20권 3호, pp. 235-246, 2013년.
- [3] 안성희,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논문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 6권 3호, pp. 319-331, 2000년.
- [4] McHugh, M. D., Kutney-Lee, A., Cimiotti, J. P., Sloane, D. M., & Aiken, L. H., "Nurses' widespread job dissatisfaction, burnout, and frustration with health benefits signal problems for patient care", *Health Affairs*, 30(2), pp. 202-210, 2011.
- [5] Saber, D. A., "Frontline registered nurse job satisfaction and predictors over three decades: a meta-analysis from 1980 to 2009", *Nursing Outlook*, 62(6), pp. 402-414, 2014.
- [6] Slavitt, D. B., Stamps, P. L., Piedmont, E. B., & Haase, A. M.,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27(2), pp. 114-120, 1978.
- [7]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Y: Academic Press, 1977.